

한국판 청소년 성찰기능척도 타당화

김 홍 주

김 은 영[†]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Fonagy 등(2016)이 정신화(mentalization)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기보고식 성찰기능 척도(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를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예비조사(299명)와 본 조사(443명)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중앙치 응답 문항(central response item) 26문항을 정신 상태에 대한 확실성(Certainty; RFQ_C) 척도와 정신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 RFQ_U) 척도로 각각 코딩하여 다시 재검하였다. 이어서 이론적 가정 및 Fonagy 등(2016)의 제안에 따라 2요인으로 고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별로 가장 부하량이 많은 6문항을 선정하여 총 12문항의 한국판 청소년용 단축형 성찰기능 척도를 도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2요인 구조를 확인하였고, 내적 신뢰도도 양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주요어 : 정신화, 성찰기능 척도, 청소년, 타당화

[†] 교신저자 : 김은영,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80(산격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신관 411호 / Tel : 053-950-5809, E-mail : hyunhuk@knu.ac.kr

정신화란 개인의 욕망, 감정, 신념과 같은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기초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의 내재적, 외현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Fonagy & Bateman, 2008)이다. 성찰기능은 정신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작적 지시체(operationalized referent)이며(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 성찰기능 척도는 이러한 정신화의 조작적 측정 도구이다. 즉, 정신화는 특정 상황 또는 특정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되었던 일련의 성찰기능들이 경험적 오류검증 과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패턴으로 인식될 때 당사자의 내면에 각인되고 체화되는 성찰의 통계치에 대한 개념적 실체인 것이다(차혜명, 김은영, 2016). 애착 관계의 맥락에서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반영하는 능력(Ha, Sharp, Ensink, Fonagy, & Cirino, 2013)인 정신화 능력은 선천적이지만, 동시에 정신화 능력의 성장은 발달적 성취이며, 이것은 양육자의 돌봄의 질에 달려있다. 정신화 능력이 발달하는데 필수적인 적절한 상호작용의 부재는 정신화 능력의 미발달을 초래하고, 나아가 각종 정신 병리로 진행될 수 있어, 인간의 발달과 성격 형성 및 심리치료 과정에서 중요하다.

성찰기능을 측정하는 타당화된 도구로 성인 성찰기능 척도(Adult Reflective Functioning Scale: ARFS, Fonagy, Target, Steele, & Steele, 1998)와 이를 모델로 개발된 아동용 성찰기능 척도(Child Reflective Function Scale: CRFS, Target, Oandasan, & Ensink, 2001)가 있다. 성인 성찰기능 척도는 Fonagy 등(1998)이 성인 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 George, Kaplan, & Main, 1985)의 응답 내용 중 성찰기능과 관련된 응답을 별도로 코딩한 것이다. 이는 면접 참여자들이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

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자신이나 타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데 큰 편차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부모의 심리적 정서에 대한 응답자의 경험과 그것이 응답자 자신의 내적 발달에 끼친 영향을 묘사하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들 면접에 기반을 둔 성찰 척도는 풍부한 임상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장시간(45~90분)이 소요되고 고도로 숙련된 체점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역학 연구에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단일의, 전체적인 점수(global score)로 정신화 과정의 복잡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Choi-Kain & Gunderson, 2008; Gullestad & Wilberg, 2011). 물론 대인관계적 맥락은 정신화 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인애착면접은 정신화 평가의 이상적인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본(sample) 수의 한계 외에도 최근의 관리 의료(managed care) 시스템과 근거 기반 치료(evidence-based treatment)라는 커다란 사회적 압력이라는 흐름으로 인해(차혜명, 김은영, 2016), 정신화 이론에 내재한 다양한 차원을 포착하면서도 실시와 체점이 간편한 척도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성찰 척도의 등장으로 애착, 정신병리, 심리치료 과정 및 결과와 성찰능력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었지만, 이들 연구는 대부분 성인 애착 면접을 기반으로 개발된 인터뷰 방식의 성찰 척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사례수가 많지 않고, 임상 집단에 편중되어 있어 결과 해석과 일반화에 무리가 따른다는 공통적 한계를 보였다(Katznelson, 2014).

이에 Fonagy 등(2016)은 새로운 자기보고식 성찰기능 척도(RFQ)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

다. 이 척도는 정신적 상태에 대한 확실성 (Certainty about mental states: RFQ_c) 척도와 불확실성(Uncertainty about mental states: RFQ_u) 척도의 2요인 구조로,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확신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척도에서 극단적인 점수는 성찰기능 저하(impairment)로 인한 두 가지 형태 즉 정신화과다(hypermentalization)와 정신화결핍(hypomentalization)을 평정한다. 정신화결핍은 사고가 즉시적이고 구체적이며 경직되어(concrete) 있고 심리내적 현실과 외부를 구분하지 못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신화결핍은 경계선 성격장애, 섭식장애 그리고 우울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신장애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Skarderud, 2007; Fonagy & Luyten, 2016; Lemma, Target, & Fonagy, 2011; Luyten & Fonagy, 2014). 이와 반대되는 경향인 정신화과다는 의사정신화(pseudo mentalizing) 혹은 과도한(excessive) 정신화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회적 단서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복잡한 추론을 하는 경향성이다(Sharp & Sieswerda, 2013). 이들은 모두 정신화 붕괴시 나타나는 정신화 능력이 저하된 형태이며, 경계선적 특성(borderline traits)이나 발달정신병리(developmental psychopathology)의 서로 다른 유형, 다른 측면과 차별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Sharp & Fonagy, 2008; Sharp et al. 2011) 구분하여 측정한다.

청소년기는 정신화 능력이 최종적으로 발달하는데 결정적 시기로서 중요하다(Blakemore & Mills, 2014; Mills, Lalonde, Clasen, Giedd, & Blakemore, 2014). 청소년기의 정신병리는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흔한’ 내면의 혼란으로 인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발달 장애로 정신화 능력이 통합에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Fonagy et al. 2002). 초기 애착 관계에서 양육자의 지지나 공감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정서 조절, 충동 조절 및 공감 능력과 같은 적절한 사회적 대처 전략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숨어버리거나 회피하게 되어(Derryberry & Rothbart, 1997),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동기나 소망, 감정 그리고 지각과 같은 정신적 의도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Fonagy et al. 2002). 결국, 정신화가 억제된(inhibited) 아이들은 타인의 행동을 동기와 감정 같은 정신적 의도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전략을 획득하지 못하여, 행동장애로 이어지기도 하고(Hill, Murray, Leidecker, & Sharp, 2008), 외현화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Taubner, Nolte, Wiswede, & Roth, 2010), 청소년 우울을 겪기도 한다(Murri et al. 2017). 반면에, 정신화 능력이 심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곤경에 대처하는 회복탄력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Stein, 2006)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정신화 능력의 발달은 공격적 행동 및 자해와 우울 증상을 포함한 몇몇 임상적 징후에 대해서도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고하였고(Rossouw & Fonagy, 2012; Taubner & Curth, 2013), 또한 과거 학교 폭력 개선을 위해 정신화에 기반한 집단 프로그램을 일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폭력 예방은 물론 학교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Twemlow, Fonagy, & Sacco, 2005).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의 성찰 능력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성찰 능력과 부적응 행동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도 많지 않다. 국내에 성인용

단축형 성찰기능 척도(차혜명, 2017)가 이미 소개되어 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 되지는 않았다. Fonagy 등(2016)도 성찰기능 척도를 성인만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거나 청소년용 문항을 별도로 개발하지는 않았다. Badoud 등(2015)은 성찰기능 척도를 프랑스어로 번안한 후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지만,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동일한 문항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집단은 성인 집단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명확실성 척도의 경우, 정신화 관련 척도 중 기본 공감 척도(The Cognitive subscale of the Basic Empathy Scale)의 인지요인이나 마음챙김 척도(Kentucky Inventory of Mindfulness Skills)와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adoud 등(2015)은 이것을 급격한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 집단이 성인 집단에 비해 이질성이 크고, 연령의 차이가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연령의 차이가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찰기능을 측정하는 보다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청소년용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여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onagy 등(2016)이 공개한 26문항 자기보고식 성찰기능 척도를 분석의 기초로 삼아 탐색적 요인분석을 추가하여 청소년용 문항을 별도로 구성하여 타당화하고자 한다.

Fonagy 등(2016)의 자기보고식 성찰기능 척도 26문항은 중앙치 응답 문항(central response item)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치 응답 문항이란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그렇다’가 아닌 ‘어느 정도 그렇다’는 중간 정도의 동의

를 포함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얻도록 고안된 문항이다. 예를 들어, “내가 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항상 알지는 못한다”와 같은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편향된 것으로 성찰 능력의 결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어느 정도 그렇다’는 중간 정도의 동의는 정신 상태의 불투명함을 인정하는 보다 진정한 정신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의하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극단치 채점방식(polar scoring)이 아닌, 중앙치 채점방식(median scoring)으로 채점하였다. 중앙치 채점방식은 6점 리커트 척도의 1점부터 6점까지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1, 2, 3, 3, 2, 1로 변환하여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극단적으로 응답할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중간 반응을 할수록 성찰 척도의 점수가 높아진다. 그러나 타당화 연구 결과,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양 극단의 점수가 정신화결핍인지 혹은 정신화과다인지를 변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Ha, Sharp, Ensink, Fonagy, & Cirino, 2013). 이에 응답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6점 리커트 척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바꾸고, 1점부터 7점까지의 점수를 0, 0, 0, 0, 1, 2, 3 혹은 3, 2, 1, 0, 0, 0, 0으로 변환하여 채점하였다. 동일한 문항에 대해 채점을 달리하여,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확신의 정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잘 파악하는 편이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강하게 확신하면 정신화과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확신하면 정신화결핍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중간 반응을 주로 할 경우 성찰 척도의 점수는 낮아지고, 이는 진정한 정신화(genuine mentalizing)의 특성

을 반영한 것으로 본 것이다.

중앙치 응답분향으로만 성찰 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Fonagy et al. 2016). 하나는, 대인관계 맥락에서 토론을 통해 정신화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달리,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정신화 능력을 측정할 때 자기 이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편향된 응답을 한다는 것이다. 성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 메타적 관점을 취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성찰 능력은 대개 의식적 자각이나 의식적 통제 바깥에서 일어나므로 우리의 능력이 이 영역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Lieberman, 2007; Luyten, Fonagy, Lowyck, & Vermote, 2012), 정신화 능력이 부족하면 편향된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신화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내면의 감정, 욕구 뿐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얼굴 표정에 대해서, 인지뿐만 아니라 정서에 대해서도 그리고 의식적 및 무의식적 사고의 양극단에서 균형적인 관점을 취하여 일관성 있는 전체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성찰 능력이 부족한 경우 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뛰어난 성찰기능(genuine mentalizing)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정신적 상태의 불투명함(opaqueness)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으로(Fonagy et al. 2016), 정신 상태가 궁극적으로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성을 보일뿐, 지나치게 치밀하거나 지나치게 빈약한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응답이 높은 점수를 얻고, 양 극단에 치우친 응답이 낮은 점수를 얻도록 채점해

야 하고, 또한 양 극단의 점수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Fonagy 등(2016)의 자기보고식 성찰기능 척도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26문항 외에도 46문항, 54문항 그리고 단축형 8문항이 있어 연구자의 필요와 의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와 채점이 간편한 8문항의 단축형 척도가 가장 많이 쓰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단축형 청소년용 성찰기능 척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먼저, 성찰기능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한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판 청소년용 성찰기능 척도(Korean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K-RFQA)의 요인구조와 문항구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청소년용 성찰기능 척도와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알려진 정신화 능력인 마음챙김, 공감 능력과의 상관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빈약한 성찰기능이 우울, 불안, 외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내재화 문제행동을 동반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자료 수집 전,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 승인(2017-0134)을 받고, 그 후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1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예비조사(354명)와 본조사(525명)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300개 이상이면 우수한(good) 것으로 보기

표 1. 연구대상 현황

구분		예비조사		본조사	
		n	%	n	%
성별	남	104	34.78	181	40.85
	여	195	65.21	262	59.14
	계	299	100.0	443	100.0
학년	중1	0	0.00	117	26.41
	중2	59	19.73	180	40.63
	중3	41	13.71	12	2.71
	고1	177	59.19	99	22.35
	고2	22	7.36	35	7.90
	계	299	100.0	443	100.0

때문에(Comrey & Lee, 1992; Tabachnick & Fidell, 1996),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3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고등학교에서 진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취지에 동의하는 교사들의 협조를 받아 진로 수업 시간에 실시하였다. 진로수업 담당교사에게 설문지와 설문 진행시 주의사항, 설문실시 절차를 기록한 자료 그리고 학생용 활동지를 동봉하여 설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학생용 활동지에는 검사에 대한 안내, 자가 채점 방법을 안내하여 자기이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정서적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다소 민감한 문항에 대해 응답을 거부할 경우 학생 자신의 뜻에 따라 응답을 중지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였다. 예비조사는 회수된 354명의 자료 중 결측치가 있거나, 일정구간을 한 번호로 응답하는 등의 불성실한 응답 55명을 제외한 299명, 본 조사는 525명 중 결측치가 있거나, 일정구간

을 한 번호로 응답하는 등의 불성실한 응답 82명을 제외한 44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연구대상의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빈도는 표 1과 같다.

측정 도구

자기보고식 성찰기능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도구는 Fonagy 등 (2016)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성찰기능 척도이다. 총 26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확신의 정도를 묻는 중앙치 응답 문항(‘사람들의 생각은 내게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치 응답문항이란 중간정도의 동의를 포함 때 높은 점수를 기록하게끔 고안된 문항으로, 참여자들이 7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것을 3, 2, 1, 0, 0, 0, 0 혹은 0, 0, 0, 0, 1, 2, 3으로 변환하여 다시 채점해서 ‘정신상태에 관한 확실성 척도’와 ‘정신상태에 관

한 불확실성 척도'를 구성한다. 확실성 척도는 예를 들어 '친한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므로 7점 리커트 척도에서 '매우 그렇다(=7)'라고 응답한 것은 3점이 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1)'라고 응답한 것은 0점으로 변환하여 채점한다. 불확실성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에서 '매우 그렇다(=7)'라고 응답한 것이 0점이 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1)'라고 응답한 것을 3점으로 변환하여 채점한다. 이렇게 하면, 양쪽 극단의 응답이 높은 점수를 얻게 되고, 중간 반응을 할 때 낮은 점수를 얻는다. 결국 확실성 척도와 불확실성 척도는 동일한 26문항을 다시 코딩하여 채점한 것이 된다.

불확실성 척도에 높은 점수를 얻을 경우 정신화 능력이 저하된 두 가지 형태 중 하나인 정신화결핍과 관련되고, 확실성 척도에 높은 점수를 얻을 경우 정신화과다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반면 낮은 점수는 정신상태의 불투명함을 인식한 상태, 즉 진정한 정신화(genuine mentalization)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Fonagy et al. 2016).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확실성은 .90, 불확실성은 .83이었다.

청소년용 공감 척도

청소년용 공감 척도(Adolescent Empathy Scale)는 홍예영, 김유숙(2015)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17문항을 사용하였다. 인지적('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차린다'), 정서적('다른 사람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표현적('기운 없이 앉아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말을 건다') 총 3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6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였다. 이 척도에

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공감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81이다.

학교생활 적응 척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선모(1977)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와 이상필(1990)의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재구성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정화실, 2009에서 재인용)중 학교 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본 검사지의 학교생활 적응 영역은 교사관계('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교우관계('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학습활동('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규칙('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의 4개 요인이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의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3이다.

청소년 마음챙김 다요인 척도

청소년용 마음챙김 다요인 척도(Multi-factor Mindfulness Scale for Adolescents: MMSA)는 김유리, 안도희 (2016)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19문항을 사용하였다. '의식'차원의 주의('나는 장시간 어떤 것에 주의를 잘 기울이는 편이다')와 자각('나는 그때 그 순간 그때 그 상황에 대해 분위기를 파악을 잘한다')과 '태도'차원의 개방성('나는 어떤 것이든 지간에 알고자하고 경험하고자 한다'), 자기관용('나는 지금의 내 자신을 대견하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 현재지향성(“나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지금 이 순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의 2개 차원,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였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마음챙김 수준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1이다.

문제행동 척도

문제행동 척도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것을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및 홍강의(2001)가 표준화한 K-YSR(Korea-Youth-Self Report)을 사용하였다. 지난 6개월 내에 청소년이 각 문항에 서술된 행동을 보였는지를 판단하여, 0-1-2(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의 3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불안/우울(“나는 걱정이 많다)의 13문항과 위축/우울(“기운이 별로 없다)의 8문항을,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규칙위반(“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규율을 어긴다) 15문항과 공격행동(“말다툼을 많이 한다) 17문항, 품행문제(“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4이다.

자료 분석

한국판 청소년용 성찰 능력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였고,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Fonagy 등(2016)이 개발한 척도인 26문항 성찰가능척도(RFQ)를 성인용으로 번역 및 역번역된 것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하였다. 둘째, 이들 문항들을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두 요인으로 구분하여 재코딩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한 299명의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가정 및 Fonagy 등(2016)의 제안에 따라 2요인으로 고정하고,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선정하였다. 셋째, 척도의 내적구조에 기초한 근거(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443명의 본조사 자료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별로 구인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산출하였다. 결과는 CR .70 이상, AVE .50 이상을 기준으로 검증 결과를 해석하였다. 넷째,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해 청소년용 공감척도, 청소년 마음챙김 다요인 척도, 학교생활 적응 척도,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문항 수정

Fonagy 등(2016)이 개발한 성찰가능척도(RFQ)를 성인용으로 1차 번역과 역번역을 거쳐, 연구자가 수정하였다. 척도의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급적 청소년들에게 익숙하고 친근하며, 청소년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신경을 긁는’다는 ‘짜증나는’으로, ‘부질없다’ 보다는 ‘무의미한’ 등의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중등 국어 교사 2인, 영어교사 2인이 검토하여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다듬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299명의 예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로 번안된 성찰기능척도 26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점부터 7점까지의 응답을 3, 2, 1, 0, 0, 0, 0 또는 0, 0, 0, 0, 1, 2, 3으로 변환하여 확실성 척도와 불확실성 척도로 코딩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신뢰도와 기본 가정을 확인한

결과, RFQ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9로 권장기준인 .70(Guilford, 1956; Nunnally, 1978) 이상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과 KMO 수치 확인 결과 탐색적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326) = 7180.73, p < .001$; KMO=.85).

요인추출 기법으로는 이론적 가정에 따라 2 요인으로 고정하고, 주성분 분석과 요인 간 회전은 배리맥스(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2. K-RFQA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n=299)

하위요인	문항	요인 1 (요인 부하량)	요인 2 (요인 부하량)	Cronbach's 부하량
K-RFQA_c (정신 상태에 대한 확실성)	c17.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잘 파악하는 편이다.	.76	-.07	
	c22.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다.	.73	-.01	
	c20. 남의 마음을 곧잘 읽는다.	.73	-.03	
	c04. 친한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66	-.12	.87
	c06. 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다.	.66	.01	
	c14.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대부분 예측할 수 있다.	.65	-.06	
K-RFQA_u (정신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u24. 가끔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행동하곤 한다.	.04	.71	
	u15. 종종 격한 감정이 일어나 생각이 흐려진다.	.10	.69	
	u19. 화가 나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곧잘 한다.	.14	.68	.74
	u11. 화가 나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말을 한다.	.12	.67	
	u21. 불안해지면,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끔 행동 하곤 한다.	.05	.60	
u9. 내가 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항상 알지는 못한다.	.06	.52		
고유값		9.75	5.91	
설명변량 (%)		16.68	13.45	
누적설명변량 (%)		16.68	30.12	

직각회전과 사각회전을 모두 시도해 보았으나 결과에 차이가 없었으며, Fonagy 등(2016)이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정신화의 독립적 이론 구성체로 제안한 점, 그리고 두 하위 변수가 특히 비임상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보였다는 분석결과(Fonagy et al. 2016)를 고려한 것이다.

요인분석 후에 이론적 가정 및 Fonagy 등 (2016)의 제안에 따라 각 요인별로 가장 요인 부하량이 높은 순서대로 각각 6문항씩 선정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요인은 전체 척도 변량의 30.12%(K-RFQA_c=16.68%, K-RFQA_u=13.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친한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대부분 예측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잘 파악하는 편이다’, ‘남의 마음을 곧잘 읽는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다’와 같이 공통적으로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 초점을 맞춘 문항과 ‘내가 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항상 알지는 못한다’, ‘화가 나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말한다’, ‘중중 격한 감정이 일어나 생각이 흐려진다’, ‘화가 나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곧잘 한다’, ‘불안해지면,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끔 행동 하곤 한다’, ‘가끔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행동하곤 한다.’와 같이 자신

의 감정, 사고 그리고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12문항에 대해서 443명의 본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요인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요인의 추출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χ^2/df 는 2.12, IFI는 .97, TLI는 .96, CFI는 .97, RMSEA는 .05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chi^2/df(NC)$ 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기준은 없지만, Schmitt(1978)는 10.0 미만을, Bollen(1989)은 3.0 이하를, Byrne(2001)은 2.0 미만을 적합지수로 본다. 따라서 청소년 성찰기능 척도의 요인구조는 원척도와 동일한 2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측정모형 평가 결과는 표 3과 같다.

또한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분산추출지수(AVE)와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값을 확인한 결과, 표 4와 같이 확실성은 분산추출지수가 .59로 판정기준인 .50보다 높았고, 개념신뢰도도 .90으로 기준보다 높았다. 불확실성은 분산추출지수가 .52로 판정기준인 .50보다 높았고, 개념신뢰도도 .86으로 기준 값 .70(Fornell & Larcker, 1981)보다 높았다. 이처럼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활용하여 분석

표 3. K-RFQA 모형적합도 지수 (n=443)

적합도지수	χ^2	df	χ^2/df	IFI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모형	112.42**	53	2.12	.97	.96	.97	.05 (.04~.06)

주. ** $p < .01$

표 4. K-RFQA의 분산추출지수(AVE)와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n=443)

요인	문항 번호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분산추출지수 (AVE)	개념 신뢰도 (C.R.)
K-RFQA_c	c22	1			.78	.59	.90
	c20	1.16	0.06	18.67	.85		
	c17	1.22	0.07	17.39	.80		
	c14	1.04	0.06	16.29	.76		
	c06	0.92	0.07	13.41	.64		
	c04	0.99	0.08	12.59	.60		
K-RFQA_u	u9	1			.31	.52	.86
	u21	2.21	0.43	5.09	.49		
	u11	2.70	0.49	5.48	.67		
	u19	3.30	0.61	5.43	.64		
	u15	2.73	0.51	5.34	.59		
	u24	3.00	0.55	5.47	.66		

한 결과, 청소년 성찰기능 척도의 요인별 단일차원성이 지지되어 내적 구조에 기초한 근거와 수렴근거가 양호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위요인별 내적일관성지수를 보면, 확실성 .87, 불확실성 .74로 성찰기능 척도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관련 구성개념들과의 상관관계

표 5는 성찰기능 척도의 요인 간 상관계수와 정신화 능력과 관련 있는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두 하위 척도의 요인 간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두 요인이 상대적으로 독립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정신화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공감, 마음챙김과 확실성 및 불확실성 척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확실성 척도는 공감, 마음챙김과 정적 상관, 불확실성 척도는

표 5. K-RFQA 하위척도와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443)

	K-RFQA_c	K-RFQA_u
K-RFQA_c	1	.03
K-RFQA_u	.03	1
공감	.55**	-.15**
마음챙김	.45**	-.14**
학교적응	.37**	-.20**
불안/우울	-.01	.46**
위축/우울	-.10*	.42**
규칙위반	-.07	.30**
공격행동	-.02	.46**
품행문제	-.10*	.30**

주. * p < .05, ** p < .01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정신화 능력의 결함은 학교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문제행동을 동반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학교적응과 문제행동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확실성 척도는 적응적 지표인 학교적응과 정적 상관, 불확실성 척도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불확실성 척도는 부적응 지표인 위축/우울, 불안/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 그리고 규칙위반, 공격행동, 품행문제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확실성 척도는 위축/우울과 품행문제만 부적 상관을 보였고 나머지 문제행동 척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타당화 하고자 한 성찰기능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Fonagy 등(2016)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성찰기능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중, 고등학생 74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것을 선행연구의 맥락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99명의 예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 요인에 12문항의 단축형 청소년용 성찰기능 척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Fonagy 등(2016)이 보고한 단축형 성찰기능 척도와 요인구조는

동일하지만 문항 구성은 다르다. 원척도의 문항이 “나는 항상~, 나는 왜 ~”와 같이 주로 자신의 감정, 사고, 그리고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청소년용 성찰기능 척도의 문항은 “다른 사람의~, 남의 마음을~”과 같이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 초점을 맞춘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척도의 화가 난다, 불안하다, 짜증 난다 등의 감정 표현이 많은 문항에 더하여, 청소년용 성찰기능 척도는 마음을 잘 읽는다, 생각을 알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등 마음의 주제적 역할에 대한 표현의 문항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 문화는 독립적 자기관을 바탕으로 한 개인주의적인 문화이며, 동양의 문화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우세한 집단주의 문화이다(Markus & Kitayama, 1991). 그런데 독립적 자기관(independent self-construal)을 가진 사람들은 분노, 화 같은 자아 중심적 정서(ego-focused emotion)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일차적인 주의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 된다(Cross & Madson, 1997). 반면에 상호의존적 자기관(independent self-construal)을 가진 동양의 경우 ‘타인과 연결된(connected to others) 자기’를 지향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를 정의하고, 자기를 표현하며 향상시킨다(Cross, Morris & Gore, 2002). 따라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춘 문항이 많은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타인에 대해 관심을 두고,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 읽기를 활발하게 하는 것(Cross &

Madson, 1997)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속마음을 잘 읽어내는 ‘눈치’를 발달시키는 것이 대인관계에서 친밀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최상진, 최연희, 1989; 최상진, 1997), 주의의 초점이 타인에게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문화에서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관장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성찰하는 주체적 존재(한규석, 최상진, 2008)로 보기 때문에, 정신작용을 주재하는 존재를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마음을 읽는다, 느낀다 그리고 파악한다 같은 마음의 주재성과 대인지향성을 표현하는 문항이 선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12문항 2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2요인 구조와 일치한다(Badoud et al. 2015; Fonagy et al. 2016). 정신상태에 관한 주관적 확신의 정도를 평가하는 확실성 요인 6문항, 불확실성 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확실성 척도의 내적일관성지수는 .87, 불확실성 척도의 내적일관성지수는 .74로 양호하였다. 또한, 두 요인의 CR이 판정 기준인 .70보다 높고 AVE도 판정기준인 .50 이상이었다. 따라서 청소년 성찰기능 척도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로 판단할 근거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 성찰기능 척도와 관련 척도와 의 관계에 기초하여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마음챙김, 공감 척도 점수와 청소년 성찰기능 척도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확실성 척도는 마음챙김, 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불확실성 척도는 마음챙김, 공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용 성찰기능 척도가 정신화 능력과 관련된 구성개념인 마음챙김, 공감 능

력과 함께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관의 정도는 높은 편이 아니어서 추가 요인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 성찰기능 척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적응적 지표인 학교생활적응, 부적응적 지표인 문제행동 척도와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불확실성 척도는 불안/우울, 위축/우울, 규칙위반, 공격행동 그리고 품행문제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확실성 척도는 위축/우울 그리고 품행문제와 약하게 부적 상관을 보여, 이론적 가정에 부합하였다. 불확실성 척도가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은 성찰기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이 정신병리와 폭력적 행동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Taubner & Gurth, 2013), 정신화 능력이 떨어질 경우 보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행동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와(Levinson & Fonagy, 2004)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품행문제가 확실성과 부적 상관, 불확실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서, 성찰기능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인지기반의 대처 전략 보다는 신체 중심의 자기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학교적응과 확실성 척도는 정적 상관, 불확실성 척도는 부적 상관이 있어서 성찰 능력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으로 인지 기반의 대처 전략을 사용하여 적응적이며, 이는 성찰기능이 곤경에 대처하는 회복 탄력성과도 관련이 있음(Stein, 2006)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불확실성 척도는 확실성 척도에 비해 관련 척도들과 더욱 뚜렷한 상관을 보여 주어, 선행연구에서도 불확실성 척도가 임상집

단과 비임상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결과가 더욱 뚜렷하였던 것과 일치한다(Fonagy et al. 2016). 그러나 확실성 척도는 상관의 방향은 이론적으로 기대한 대로였지만, 문제행동 척도 대부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하다고 하여도 그 정도가 미약한 수준이었다.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의 동기를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Bateman & Fonagy, 2008), 공격적인 아동의 경우 자신의 사회적 능력 및 또래의 수용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David & Kistner, 2000)이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유의한 상관을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확실성 척도 점수에 이질적인 특성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감정적 상황에 따라 정신화결과 때때로 정신화과다 모두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거식증 환자들의 경우에도 종종 높은 정신화과다 혹은 높은 성찰기능을 보고하기도 하였다(Bers, Besser, Harpaz-Rotem, & Blatt, 2013)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확실성 척도의 점수는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채점방식은 동일한 문항을 방향을 달리하여 3, 2, 1, 0, 0, 0, 0 혹은 0, 0, 0, 0, 1, 2, 3으로 점수를 변환하여 확실성 척도와 불확실성 척도를 구성하고, 변환된 점수를 합산하여 확실성과 불확실성 요인의 점수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채점방식은 각각을 하나의 독립된 척도로 활용하여 확실성 점수와 불확실성 점수를 통해 정신화결과와 정신화과다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면접기반의 성찰 척도에서 평가 결과를 ‘매우 좋음’, ‘좋음’, ‘중간’, ‘나쁨’으로 나타내듯이, 확실성 점수와 불확실성 점수 평

가 결과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 또 확실성 척도와 불확실성 척도를 합산하여 총점을 해석하는 것까지는 언급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Badoud 등 (2017)의 연구에서, 확실성 점수와 불확실성 점수를 합산하여, 결과치가 음의 값(즉, 불확실성 점수가 확실성 점수보다 높은 개인)일 때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이 정신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결과치가 양의 값(즉, 확실성 점수가 불확실성 점수보다 높은 개인)일 때는 대부분의 행동이 의도적인 정신 상태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화의 다양한 차원을 보다 더 포착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채점방식과 점수의 해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성찰기능 척도는 2요인 구조의 총 12문항 척도로, 면접을 기반으로 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던 기존의 성찰 척도에 비하여 실시와 채점이 간편하여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정서조절(김재형, 2014; 이현주, 안명희, 2012), 탈중심화 및 심리적 마음상태, 정서의식(김태사, 안명희, 2013; 박은주, 2013)등의 사회인지의 다양한 개념을 통해 정신화를 측정해 왔는데, 이들은 성찰기능을 간접적이고 부분적으로 측정한 것일 뿐, 다른 이론적 배경에서 나왔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성찰기능은 기존의 정신화 관련 척도와 달리 정신화 능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기에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성찰기능 척도는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문항으로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

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성인용 성찰기능 척도와 청소년용 성찰기능 척도는 12문항으로 문항 수는 같지만, 중복되는 문항은 6문항 이었다. 또한 한국판 청소년용 성찰기능 척도는 원척도와도 문항 수와 문항 구성이 다른데,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보다 한국 문화에 적합한 문항을 선정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한국형 청소년용 성찰기능 척도는 원척도와 문항 구성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2요인 구조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며, 이론적으로 예측한 방향으로 공감, 마음챙김과 상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문제행동 지표들과 과도 연관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청소년의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설문 대상자가 한국 청소년을 대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주로 영남 지방의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적인 표집이 아니었으며, 연령대와 성별을 균등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별하지 않았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발달적 특성이 다를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성찰능력의 저하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유리, 안도희 (2016). 청소년 마음챙김 다요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종합연구*, 14(2), 25-51.
- 김재형 (2014).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 능력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사, 안명희 (2013). 불안정 성인애착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대상과 정신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53-871.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모 (1977).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연구*, 4, 19-28.
- 박은주 (2013). 성인애착과 대인관계적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정신화 능력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이상필 (1990). 학교생활 적응수준에 따른 학업 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안명희 (2012).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13-434.
- 정화실 (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 차혜명, 김은영 (2016). 정신화 개념을 통한 애착 이론과 정신 분석의 재조명: 정신화의 경험적 기반과 측정의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167-190.
- 차혜명 (2017). 한국형 성찰기능척도의 타당화 연구: 초기방임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의 관계에서 유기도식과 정신화의 역할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상진, 최연희 (1989). 눈치의 사회심리학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89(1), 212-221.
- 최상진 (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pp.695-766). 서울: 학문사.
- 한규석, 최상진 (2008). 마음의 연구와 심리학: 마음의 문화심리적 분석에 바탕한 심리의 작용 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2), 281-307.
- 홍예영, 김유숙 (2015). 청소년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59-183.
- Achenbach, T. M. (1991). *Integrative Guide for the 1991 CBCL/4-18, YSR, and TRF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adoud, D., Luyten P., Fonseca-Pedrero, E., Eliez, S., Fonagy P., & Debbané, M. (2015). The french version of the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validity data for adolescents and adults and its association with non-suicidal self-injury. *PLoS One*, 10(12): e0145892. doi:10.1371/journal.pone.0145892.
- Badoud, D., Prada, P., Nicastro, R., Germond, C., Luyten, P., Perroud, N., & Debbané, M. (2017). Attachment and reflective functioning in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1(1), 1-14.
- Bateman, A., & Fonagy, P. (2008). Comorbid antisocial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mentalization based treat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4(2), 181-194.
- Bers, S. A., Besser, A., Harpaz-Rotem, I., & Blatt, S. J. (2013). An empirical exploration of the dynamics of anorexia nervosa: representations of self, mother, and father. *Psychoanalytic Psychology*, 30(2), 188-209.
- Blakemore, S. J., & Mills, K. L. (2014). Is adolescence a sensitive period for sociocultural process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5(1), 187-207.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hoi-Kain, L. W., & Gunderson, J. G. (2008). Mentalization: ontogeny, assessment, and application in the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9), 1127-1135.
- Comrey, A. L., & Lee, H. B. (1992).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 Cross, S. E., Morris, M. L., & Gore, J. S. (2002). Thinking about oneself and others: the

-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3), 399-418.
- David, C. F. & Kistner, J. A. (2000). Do positive self-perceptions have a “dark side”? examination of the link between perceptual bias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4), 327-337.
- Derryberry, D., & Rothbart, M. (1997). Reactive and effortful processes in the organization of tempera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4), 633-652.
- Fonagy P., Target, M., Steele, H., & Steele, M. (1998). *Reflective-Functioning manual: version 5 for application to adult attachment interviews*. Unpublished manual, London: University College.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 Target,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NY: Other Press.
- Fonagy, P., & Bateman, A. (2008).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a mentalizing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2(1), 4-21.
- Fonagy P., & Luyten P., Moulton-Perkins A., Lee Y-W., Warren F., Howard S. Ghinai R., Fearon P., Lowyck, B.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mentalizing: the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PLoS One*, 11(7): e0158678. doi:10.1371/journal.pone.0158678.
- Fonagy, P., & Luyten, P. (2016). A multilevel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D. Cicchetti(E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3: maladaptation and psychopathology*. 3rd ed (pp. 726-792).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85). *The berkeley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ley.
- Guilford, J. P. (1956). *A Factor-analytic study of verbal fluency: studies of aptitudes of high-level personnel*.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Gullestad, F. S., & Wilberg, T. (2011). Change in reflective functioning during psychotherapy: a sing-case study. *Psychotherapy Research*, 21(1), 97-111.
- Ha, C., Sharp, C., Ensink, K., Fonagy, P., & Cirino, P. (2013). The measurement of reflective function in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borderline traits. *Journal of Adolescence*, 36(6), 1215-23.
- Hill, J., Murray, L., Leidecker, V., & Sharp, H. (2008). The dynamics of threat, fear and intentionality in the conduct disorders: longitudinal findings in the children of women with post-natal depressio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63(1503), 2529-2541.
- Katznelson, H. (2014). Reflective functioning: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4(2), 107-117.
- Lemma, A., Target, M., & Fonagy, P. (2011). *Brief dynamic interpersonal therapy: a clinician's*

- guid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nson, A., & Fonagy, P. (2004). Offending and attachment: the relationship interpersonal awareness and offending in a prison population with psychiatric disorder. *Canadian Journal of Psychoanalysis*, 12(2), 225-251.
- Lieberman, M. D. (2007). Social cognitive neuroscience: a review of core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259-289.
- Luyten, P., Fonagy, P., Lowyck, B., & Vermote, R. (2012). Assessment of mentalization. In A. Bateman & P. Fonagy (Eds), *Handbook of mentalizing in mental health practice* (pp. 43-6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Luyten, P., & Fonagy, P. (2014). Psychodynamic treatment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mood disorders: a mentalizing perspective. In L. Choi-Kain, & J. Gunderson (Eds.),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mood disorders: controversies and consensus* (pp. 223-251). New York, NY: Springer.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ills, K. L., Lalonde, F., Clasen, L. S., Giedd, J. N., & Blakemore, S. J. (2014).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social brain in late childhood and adolescence.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9(1), 123-131.
- Murri, M. B., Ferrigno, G., Penati, S., Muzio, C., Piccinini, G., & Innamorati, M. et al. (2017). Mentaliz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clinical sample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22(2), 69-76.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NY: McGraw-Hill.
- Rossouw, T. I., & Fonagy, P. (2012).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for self-harm in adolesc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51(12), 1304-1313.
- Schmitt, N. (1978). Path analysis of multitrait-multimethod metric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2(2), 157-173.
- Skårderud, F. (2007). Eatingone's words, part III: mentalisation-based psychotherapy for anorexianer vosa an outline for a treatment and training manual.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5(5), 323-39.
- Sharp, C., & Fonagy, P. (2008). The parent's capacity to treat the child as a psychological agent: constructs, measures and implications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Social Development*, 17(3), 737-54.
- Sharp, C., Pane, H., Ha, C., Venta, A., Patel, A. B., Sturek, J., & Fonagy, P. (2011). Theory of mind and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in adolescents with borderline trai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0(6), 563-73.
- Sharp, C., & Sieswerda, S. (2013). The social-cognitive basis of borderline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7(1), 1-2.
- Stein, H. (2006). Does mentalizing promote resilience?, In J. G. Allen & P. Fonagy (Eds.), *Handbook of mentalization-based treatments* (pp.

- 307-326). Chichester: Johan Wiley & Sons.
-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9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3rd ed.). New York: HarperCollins.
- Target, M., Oandasan, C., & Ensink, K. (2001). *Child reflective functioning scale scoring manual: for application to the child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manuscript UK: Anna Freud Centre/University College London.
- Taubner, S., Nolte, T., Wiswede, D., & Roth, G. (2010). Mentalisierung und externalisierende verhaltensstörungen in der adoleszenz. *Psychotherapeut*, 55(4), 312-320.
- Taubner, S., & Curth, C. (2013). Mentalization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traumatic experiences and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ce. *Psibologija*, 46(2), 177-192.
- Twemlow, S. W., Fonagy, P., & Sacco, F. C. (2005). A developmental approach to mentalizing communities: I. a model for social change.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69(4), 265-281.

원 고 접 수 일 : 2017. 12. 17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2. 14

게 재 결 정 일 : 2018. 03. 29

A Validation Study of Korean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Heung Ju Kim

Eun Young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tended to validate the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RFQ) for use with Korean adolescents. Preliminary and primary surveys were conducted with secondary school students (N= 299, N= 443). Prior to analysis, 26 central response items were coded with the Certainty About Mental States (RFQ_c) and Uncertainty About Mental States (RFQ_u) scales, respectively. Based on the theoretical assumptions of Fonagy et al. (2016), the two factors were fixed and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Six items with the highest loadings were selected for each factor, and a total of 12 items constituted the brief version of RFQ for Korean adolescent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a good model fit and internal reliability was satisfied. Finally,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were evaluated.

Key words : mentalization,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adolescents, validation